



심야괴담회

김구라·김숙 입담만으로 오싹 MBC ‘심야괴담회’ 입소문 짝

오로지 괴담 하나로 승부하는 예능프로그램이 있다. MBC ‘심야괴담회’이다. 시청자들로부터 제보받은 각종 괴담과 소름 돋는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방송가의 유일 무이한 공포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야괴담회’는 김구라, 김숙, 황제성, 허안나 등 연예인들이 시청자들이 투고한 괴담을 읽고, ‘어둠시나’라 불리는 44명의 판정단의 평가로 가장 무서운 사연을 뽑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한 재연 장면도 등장하지만, 출연자들의 실감 나는 입담이 공포 분위기의 핵심이다. 별다른 효과음이나 컴퓨터그래픽 효과 없이도 이들의 으스스한 목소리만으로 짝짝 놀라기 충분하다. 한밤중에 친구들끼리 둘러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눴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프로그램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로 돌아보기 좋은 ‘정주행 추천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OTT 웨이브에서 8월 인기 예능 콘텐츠 5위에 올랐다.

프로그램에 제보하고 싶다면 꼭 실제로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다. 동네에 떠도는 귀신 목격담, 전해 내려오는 전설 등 듣는 사람의 오감을 저리게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오케이’다. 사연이 소개된 시청자에게는 각각 44만4444원을 사례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mailto:yjh0304@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김아중, 고혹적 매력 흠뻑 배우 김아중이 23일 패션매거진 ‘싱글즈’를 통해 니트 드레스로 고혹적이면서도 퇴폐적인 매력을 선보였다. 그는 관련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새 드라마 ‘그리드’ 촬영에 한창이다. 사진제공 | 싱글즈

‘뮤비 연인’ 조이·크리쉬, 현실 연인으로...

지난해 곡 작업 중 인연...1년여 만나

뮤직비디오 속 연인이 실제 연인이 됐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조이(25)와 가수 크리쉬(29)가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 23일 각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피네이션은 “두 사람이 선후배로 지내다 최근 호감을 가지고 만나기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에게 관계자들은 두 사람은 이미 1년여 동안 만남을 이어왔다고 말한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해 5월 함께 노래 호흡을 맞추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이가 크리쉬의 싱글 프로젝트 ‘홈메이드’의 첫 곡인 ‘자나깨나’의 피쳐링을 맡았다. 이들은 녹음실 메이킹영상을 통해 “서로의 팬”이라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크리쉬는 각종 방송을 통해 “조이가 이상형이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욱 친밀하게 확인할



조이

크리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반려견도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두 사람은 펫스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각자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등 돈독하게 사랑을 키워왔다.

현재 크리쉬는 지난해 11월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5월 솔로로 데뷔한 조이는 16일 소속 그룹 레드벨벳에 다시 합류해 미니앨범 ‘퀸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룹 활동은 2019년 12월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mailto:annjoy@donga.com)

‘나 혼자 산다’ 출연자 집값 논란 두 시선

“상대적 박탈감 느껴” “노력해서 얻은 자리”

전현무집 45억·박나래집 55억
일부 시청자 ‘나혼산’ 폐지 주장
집값 보도 ‘사생활 침해’ 시선도



전현무

박나래

최근 MBC ‘나 혼자 산다’ 시청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감론을박하고 있다. 전현무, 박나래, 기안84, 그룹 마마무의 화사 등 출연자들의 집과 관련한 논란이다.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현실에서 혼자 살아가는 스타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출연자 집을 소개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스타들의 집값이 대부분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이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은 열심히 일해 잘 사는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는다.

● ‘나 혼자 잘 산다?’

전현무는 최근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자신의 새 아파트를 공개했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아파트의 매매가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로, 지난해 말 기준 44억 9000만원이었다. 이에 앞서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빌라 속 일상을 공개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다.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55억여원에 낙찰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또 다른 출연자 기안84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건물과 마마무 화사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도 30~40억원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일부 시청자는 ‘1인 가구가 트렌드’가 된 상황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싱글라이프의 진솔한 모습, 지혜로운 삶의 노하우,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철학’ 등을 내세운 프로그램의 콘셉트에 어긋난다며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연예인 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되레 화제가 되면서 “시청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출연자의 과거 행적까지 거론해 아예 ‘나 혼자 잘

산다’라 비난하며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까지 주장한다. 이에 “연예인들은 나름 각자 자리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는 시선이 맞부딪친다.

● 연예인 집값,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22일 네이버 검색량 분석 시스템 ‘데이터랩’을 통해 최근 6개월 동안 ‘연예인 집값’의 검색 변화를 보면, 최대 검색량 100을 기준으로 올해 5월2일 71, 5월26일 86, 6월2일 86, 7월19일 100 등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각 시기를 전후해 일부 매체가 연예인 집값에 관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이다.

일부 매체는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 삼아 연예인들의 아파트 값을 산정한 내용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집과 부동산 매매 현황 등을 때때로 보도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톱스타급 연예인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집값과 관련한 방송 내용과 매체 보도는,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 변화 사례가 보여주듯, 언제나 대중적 시선을 모으는 이슈가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예인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공개 등을 통한 집값 보도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며 “대중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는 시선도 나온다.

23일 한 방송 관계자는 ‘나 혼자 산다’로 촉발된 시청자들의 엇갈린 시선이 “연예인의 일상을 공개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성격상 시청자 호기심을 통해 집값이 드러난 경우”라며 “최근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시청자 시각도 치열하게 맞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mailto:tadada@donga.com)

1분에1000번이상! 팍팍팍! 강력하게!

편하게 누워서 자동발목 펌프기 10분이면~만보효과!
국내생산 자동발목펌프기~ 좋은선택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Made in Korea

실외 운동이 어려울 때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거나 증간소를 문제도 망설여진다. 소음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핫하다는 발목운동기를 소개한다. 발목자동펌프기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다. 이 제품은 실내에서 건강을 챙길수 있는 좋은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단 10분으로 몸 전체가 순환이 잘 되면서 발목 및근육을 탄탄해 강한 자극이 위로 팽팡팡! 올라가면서 진진순환을 돕는 차원이 다른 발목 펌프운동기이다. 피로는 썩~!!! 하체부터 솟아나는 순환력! 발목뿐 아니라 뭉치고 피로한 종아리도!!! 제2의 심장 발바닥 경혈점도 지압펌프! 저리는 손가락 팔복도 팽팡!

하리,아깨도 가능하도록 설계가업 되었다. 쉽고 간단한 조작 방식이 편리한 리모컨 8단계 강약 조절과 6가지 모드 선의 선택 기능으로 강력한 파워의 솔레노이드 안마봉을 탑재하였으며 가벼운 무게와 사이즈로 손쉬운 이동이가능하다. 알아서 두드려주는 자동모드, 느긋하게 잡드는 수면모드, 자동 OFF, 팔잡들어도 OK! TV보면서OK! 손발이 저리고 차가우신 분, 온 몸이 추시고 아프신 분, 무릎이 아파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아프신 분, 뭉치고 추시는 분들께 제격이다.

300분 한정특가로 199,800원에서 11만원할인된 89,800원에 한정판 매하며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도 있다. 입금구좌: 농협: 356-1272-3414-43 (썸모아 김선정)으로 입금하면 로젠택배로 익일 배송된다. 택배비 3,000원은 소비자 부담이다.

300분 한정 기념특가!
89,800원 무료 11만원 할인!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전화: 1661-9878 로 무료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당지사: 02\) 6085-4414](mailto:sadang@naver.com)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정품 1000곡/ 가사도 나오는 최신 휴대용 노래방 라디오

정품1000곡/ 가사도 나오는 최신 휴대용 노래방 라디오

- ▶오리지널 가수과 명곡 가요와의 조화/ 정품 1000곡 출시!
- ▶대형화면에 가사제공/ 1회충전 20시간사용
- ▶SD메모리카드 -“스마트폰(다른 기기)에서 재생가능”

전곡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증
정품 제품



Inkel포켓노래방/라디오
● LED 대화면 가사제공
● 지동선국 FM라디오기능
● 외부기기연결 AUX모드 지원
● 최대출력 12시간
사용가능 Max 3W

● 정품SD음원카드
추억의 올드팝송 발매(1000곡)
엘비스, 비틀스 등등

가짜 불법음원 사용은 대중음악 발전에 큰 타격을 줍니다!
박현빈, 장윤정에서
임영웅, 영탁, 강진과
진성까지~
1000곡 수록!

선물용으로 최고!

무로상담전화: 1661-1224 입금계좌: 농협351-1015-0904-23 썸모아
서울시당지사: 02-6085-4414

행사기간 50분 한정!
AC충전아답터
USB스틱
최신 이어폰
증정!!!